

# 버려진 담양 **南松倉庫** 예술옷 입히니 '보물창고'

'담빛예술창고'로 바뀌 이병찬·이이남·조대원·정운학 등 11명 참여 10월 13일까지 개관전

## 문화카페엔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

14일 오전 방문한 '담빛예술창고'는 전면에 써진 남송창고(南松倉庫)라는 큼지막한 한문이 눈에 띄었다. 담양 관방제림과 인접하고 있는 건물은 빨간 벽돌에 파란 지붕을 얹은 농촌 여느 양곡창고와 다를바 없는 모양이었다. 약 330㎡ 규모 2개 동이 마주보고 있으며 군데군데 깨진 벽돌들은 지나간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적한 건물 외부와는 다르게 내부는 분주한 모습이었다. 곳곳서 벽에 작품을 걸기 위한 드릴 소리가 들렸고 미디어아트 작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하기 위해 빔프로젝트와 카메라를 정비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 사람들은 분주히 손을 놀리며 바닥을 닦고 있었고 페인트 칠도 한창이다. 10여년간 비어있던 폐양곡창고가 예술공간으로 환골탈태하는 과정이었다.

담양군 문화재단에 따르면 1960~1970년대 지어진 남송창고는 정부양곡을 보관하던 용도로 사용하다 국가 수매제도의 변경으로 활용도가 떨어져 비어있는 채 방치됐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거미줄이 처진 흉물스런 모습은 관방제림을 찾은 방문객들이 눈살을 찌뿌리기에 충분했다.

원래대로라면 철거를 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이 건물을 예술공간으로 활용하자는 담양문화재단의 제안에 따라 리모델링사업이 시작됐다. 1개 동은 각종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건물은 문화카페 및 예술체험장소로 쓰인다. 카페에는 국내 유일의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돼 정기적으로 연주회도 열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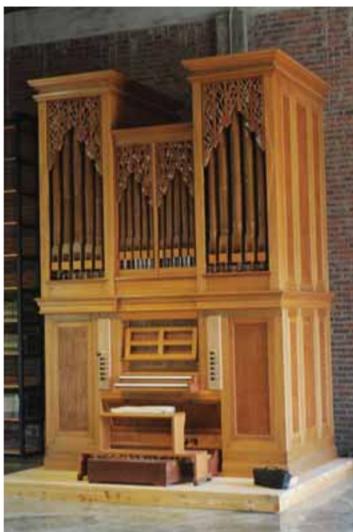
이름은 공모를 통해 '담양의 빛'이라는 의미를 지닌 '담빛예술창고'로 정했다. '창고'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데는 창고에서 유래했다는 역사성을 보여주고 예술을 저장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남송창고라는 한문도 역시 역사성을 보여주기 위해 그대로 유지했다.

'담빛예술창고'는 14일 개관식을 갖고 '담빛예술로 물들이다'를 주제로 개관전을 개최했다. 주민이나 관광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인터랙티브 아트를 개관전 전시 장르로 선택했다. 인터랙티브 아트란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미술이 아닌 관람객이 움직이는 대로 모니터 영상과 소리가 반응하고,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현대 미술이다. 대나무박람회 기간에 열리는 만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을 선정한 게 특징이다.

참여작가는 김혜경·김태희·김치중·성연주·이



이병찬 작 'urban creature'



문화카페에 설치된 국내 유일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



'담빛예술창고'로 바뀐 남송창고 현재 모습.

병찬·오창근·양승수·이이남·조대원·정운학·홍성대 등 11명이다.

전시장 천장에 매달린 이병찬 작가의 'urban creature'는 원색의 비닐로 만들어져 관람객들이 만져볼 수 있다. 사슴·꽃·나무 등 인위적 생태계를 표현한 이 작품은 바람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 마치 실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오창근 작가의 'Rhythmic Motion'은 카메라를 이용해 관람객을 화면에 등장시킨다. 화면에 나온 원반을 건드리면 음악소리와 함께 움직인다. 성연주 작가의 'Wearable Food' 시리즈 작품은 멀리

서 보면 회화로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각종 음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장현우 총괄기획팀장은 "버려진 창고나 공장을 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외국처럼 담빛예술창고도 주변 경관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기획했다"며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지 못한 수준 높은 현대미술의 다양한 장르를 전시해 담양 문화수준을 전국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관 전시는 다음달 13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61-380-3488.  
/글·사진=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오광섭 작가 제4회 카톨릭미술공모전 대상



### '서소문 밖의 순교'

####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전시

제4회 카톨릭미술공모전 대상에 광주 출신 오광섭 작가의 '서소문 밖의 순교' <사진>가 선정됐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주관하는 카톨릭미술공모전은 순교 등 매년 주제를 정해 2년마다 치러진다.

오 작가의 '서소문 밖의 순교'는 과거 병인년 부터 시작된 한국 천주교의 박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서소문 밖 형장에서 형틀에 묶인 채 박해를 받는 순교자들과 김대건 신부에게서 교리를 받는 신앙 선조들 모습이 주를 이룬 가운데 그림 측면에 서소문 순교 성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신자들이 순교자들을 향해 기도하는 형

상을 배치했다.

또 하단부에는 현대인들이 이런 박해의 수난사를 응시하고 있는 장면을 통해 작품 전체를 파노라마처럼 구성했다.

오 작가는 "많은 내용을 담아 주제 전체를 보여주려 크고 작은 수 많은 군상을 철저히 준비된 화면구성으로 육신처럼 한 화면에 넣었다"며 "진실성이 묻어나는 위로와 역사적 사실을 그리기 위해 노력했으며 숙연한 마음으로 순교자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붓끝으로 다듬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상작은 12월 31일까지 절두산순교성지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에 전시된다.

전남대 예술대학을 졸업한 오씨는 한국미술협회,신형회,KAMA 등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개인전 4회, 단체전 200여회 등을 가졌다.

/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어린왕자' 읽는 음악회 19일 노대동 물빛공원

### 광장음악회 70회 무대

생텍쥐페리의 대표작 '어린 왕자'는 어른을 위한 동화다.

소설 읽는 음악회 '어린왕자'가 오는 19일 오후 7시 광주 노대동 물빛공원에서 열린다. 광장음악회 70회 무대로 준비된 행사다.

공연은 한유진씨가 나레이션을 맡아 '어린왕자'를 관객들에게 읽어주고 그에 어울리는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소프라노 임현진, 첼리스트 박효은, 플루티스트 김란, 피아니스트 이유평씨가 함께한다. 레퍼토리는 슈베르트의 '음악에 부침',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 중 '와인에 취해 떨어질 때까지', 브루흐의 '콜 니드라이', 토스티의 '세레나데', 슈만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All i ask of you' 등이다.

한편 광장음악회는 무대에 함께 설 아 마추어 음악가를 찾는 오디션도 진행된다. 문의 010-4802-8021.

/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